

韓國 傳承童謠 研究

—〈家族謠〉를 中心으로—

左 惠 景*

目	次
I. 머리말	Ⅲ. 전개과정
Ⅱ. 유형	Ⅳ. 맺음말

I. 머리말

지금까지 傳承童謠의 수집이나 연구는 다른 口碑文學에 비해 부진한 편이며 이론체제도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傳承童謠의 연구는 民謠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연구되어 왔으며, 수집 역시 民謠 수집의 부산물로 몇몇 民謠集¹⁾에 함께 수록되거나 童謠集²⁾으로 간행된 바 있지만 獨自의인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世態에 밀려 사라지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傳承童謠는 아동의 유희에 수반되어 불리는 遊戲謠가 대부분이지만 기쁨,

*大學院 國語國文學科修了

- 1) 金素雲:「朝鮮口碑民謠集」, (東京:第一書房), 1933.
金思燁·崔常壽·方鍾鉉:「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任東權:「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_____ :「韓國民謠集Ⅲ」, 集文堂, 1975.
_____ :「韓國民謠集Ⅴ」, 集文堂, 1980.
- 2) 嚴弼鎭:「朝鮮童謠集」, 章文社, 1924.
金素雲:「朝鮮童謠選」, 岩波書店, 1933.
_____ :「口碑童謠選」, 博文書館, 1940.
박두진:「한국전래동요독본」, 을유문화사, 1962.
신경림:「한국전래동요집 I, II」, 창각과 비평사, 1981.

슬픔, 사랑, 미움 등의 온갖 감정을 묘사하여 개인의 情緒를 노래한 것도 많은 편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나 부모, 또는 이별한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 兄弟姊妹 간의 사랑과 질시, 繼母에 대한 反抗을 노래한 것 등은 자신과 밀접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러 개의 各篇(Versions)이 하나의 스토리(Story)를 형성하여 叙事的인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노래들은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며, 가족 즉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童謠 중 가족에 관계된 노래들을 중심으로 各篇의 類型과 전개양상, 構造化와 意味網을 파악하여 포괄적인 作品分析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金素雲 「口傳童謠選」과 任東權 「韓國民謠集 I, III」의 童謠篇에 分類되어 실려 있고 濟州島에서 불려지는 자료는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과 秦聖麒 「南國의 民謠」에 실려, 民謠와 함께 分類되고 있다.

연구대상은 金素雲 「朝鮮童謠選」 23편과 任東權 「韓國民謠集」 107편, 필자의 「濟州傳承童謠研究」³⁾를 위해 수집된 자료 중에서 가족과 관련된 노래 20여편을 선정 총 150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기타 民謠集⁴⁾의 자료는 필요시 참고 자료로 이용했다.

家族과 관련된 노래의 分類를 위해서 선행연구의 분류안을 제시해보면 <표 1>과 같다.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노래가 童謠 또는 民謠로 나뉘어 실려지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일 경우 死別하거나 別居 등인 경우를 <戀母歌> <戀母謠>로 分類되고, 金素雲은 죽은 어머니를 따로 <追慕>로 개별 분류하기도 한다. 任東權은 戀母謠를 家族謠에서 분리 그 독자성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가족에 관계된 노래중 대부분의 노래가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거나, 死別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등에 보다 큰 비중을 둔 분류로 보인다. 또 개인의 情緒를 중시한 가족노래는 情緒謠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濟州地域에서 불리는 노래들은 본토의 童謠와 비슷한 것들일지라도 맷돌방아노래와 같은 노동요의 사설에 편입되어 함께 불리어짐으로 民謠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같은 類型, 동일한 노래라도 분류자의 시각에 따라 여러 갈래로 分類되고 있는 실정이다.

3) 拙稿; 「濟州傳承童謠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1985.

4)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서울: 일조각), 1965.

秦聖麒; 「南國의 民謠」, 濟州民俗文化研究所, 1968.

〈표1〉 家族에 관계된 노래 分類

著 者	册 名	分 類	편수
金素雲 任東權	「口傳童謠選」	• 부모형제 • 童女謠 • 추모(追慕)	23
	「韓國民謠集 I, III」	1. 새아새아謠 2. 연잎땃잎謠 3. 엄마품謠 4. 날기름때謠 5. 多福女謠 6. 改嫁한 어머니謠 7. 죽은 엄마謠	107
金榮敦	「濟州民謠研究上」	• 맷돌방아노래(5. 사랑과 원한의 노래) A. 어버이사랑 B. 어머니사랑 C. 兄弟사랑 D. 자식사랑	88
秦聖麒 필 자	「南國의 民謠」 제주도 일원	• 二정가(4. 육친가) 지역조사	20

필자는 傳承童謠 중에서 가족간에 빚어지는 각 개인의 감정을 묘사한 노래를 家族謠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음 素材, 題材, 內容, 類型, 各篇數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死別하거나 또는 改嫁 등으로 不在 상황의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를 戀母謠, 父母의 恩功을 노래하거나 죽은 부모를 그리워하는 처지를 노래한 父母謠, 형제간의 手族之情이나 미움을 노래한 兄弟姊妹謠, 繼母에 대한 증오를 노래한 繼母謠, 全家族의 사랑을 노래한 것을 기타로 분류하여 보았다.

傳承童謠 研究는 가락·사설·기능 등 口碑文學 構成要素의 총체적인 分析 및 童謠를 부르고 듣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현장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깊이 있는 文學의 研究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적 특이성으로 인해, 상황론적 연구보다 작품의 內部世界를 分析하는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童謠 중에서도 사설이 길고 유형이 다양하며 전개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노래를 선택하여 研究, 童謠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유형

어린이들은 주로 자신과 근접한 가족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여 노래한다. 죽은 부모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가 하면 兄弟姉妹에 대한 애정, 부모에 대한 反哺報恩의 사랑을 노래한다. 그와 반대로 '형제일신'을 모르는 오빠나 前妻子息을 虐待하는 繼母를 미워하며 살아있는 어머니나 부모를 노래 할 경우는 기쁨이 노래되는 반면, 어머니와의 死別의 슬픔은 극에 달하게 된다. 또한 죽음은 현실의 차원을 넘어 '가지'나 '파랑새'로 환생을 회구하게 된다. 家族謠에 드러나는 사랑, 미움, 슬픔, 기쁨, 죽음, 환생의 題材를 중심으로 각 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 사랑

- A₁ 오라버니를 사랑함
- A₂ 형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함
- A₃ 살아계신 부모의 은혜를 기림
- A₄ 돌아가신 부느리 은공을 기림
- A₅ 어머니의 은혜를 기림
- A₆ 돌아가신 어머니의 은공을 기림
- A₇ 전가족의 사랑을 노래함

B. 미움

- B₁ 재산 차지한 오빠를 미워함
- B₂ 형제일신 모르는 오빠를 미워함
- B₃ 계모의 학대 수모를 노래함
- B₄ 전처자식 죽인 계모를 증옴
- B₅ 전처자식 두고 재혼한 아버지를 미워함

C. 슬픔

- C₁ 죽은 부모를 슬퍼함
- C₂ 죽은 어머니를 슬퍼함
- C₃ 전 가족의 헤어짐을 노래함
- C₄ 改嫁한 어머니를 슬퍼함

D. 기쁨

- D₁ 살아계신 부모를 기뻐함
- D₂ 제모의 죽음을 기뻐함

E. 죽음

- E₁ 부모의 죽음을 노래
- E₂ 어머니의 죽음을 노래
- E₃ 형제의 죽음을 노래

F. 환생

- F₁ 죽은 형제가 가지로 환생함
- F₂ 죽은 전설아가기가 파랑새가 됨
- F₃ 오빠는 개구리, 누이는 뱀으로 환생함

이러한 作品의 내용은 인물간의 조화 또는 대립을 통해 서로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을 표출한다. 성인보다 어린이들에게는 감정이 直叙적으로 묘사된다고 볼 수 있다.

童謠의 사설에 나타나는 話者는 대부분 1인칭인 ‘나’로 나타나지만, 각 편마다 狀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하며 唱者와는 동일 狀況일 경우도 있지만 무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화자인 ‘나’는 작품내부에서 認識과 行動의 主體가 되며, 客體와의 관계에서 客體인 대상이 바로 ‘상대역’이 되고 ‘주요 상대역’만이 있을 경우와 ‘보조 상대역’이 함께 공존하기도 한다.

감정표출은 인물간의 갈등을 드러내면서 사랑과 미움, 슬픔과 기쁨, 죽음과 환생을 題材로 하고 있다. 童謠의 유형은 크게 人物사이의 갈등과 題材의 대립양상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로 人物사이의 갈등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주역①과 상대역②가 나타나는 유형과 주역①, 주요상대역②, 보조상대역③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②의 대립일 때 戀母謠, 父母謠, ①:②:③의 대립일 때 戀母謠, 兄弟姊妹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題材에 따른 人物構成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家族謠 題材에 따른 人物構成

題 材	인 물 구 성			편 수 (%)
	A	B	C	
A. 사랑	나(여동생) 나(우리형제)	• 오빠, 언니 • 부모, 엄마		36(23.2)
B. 미움	나(시누이) 우리형제(전처자식)	• 오빠(결혼한) • 재혼한 아버지	올케 계모	26(16.8)
C. 슬픔	우리 형제	• 돌아가신 부모, 어머니 • 改嫁한 어머니		40(25.8)
D. 기쁨	우리 형제 우리형제(전처자식)	• 우리 부모 • 계모		6(3.9)
E. 죽음	우리형제(고아) 나(고아)	• 우리부모, 어머니 • 우리형제		28(18.0)
F. 환생	우리형제(전처자식) 나	• 아버지 • 친구		19(12.3)
				155(100) ⁵⁾

대부분의 노래에서 話者는 女性 즉 女兒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비록 부모를 그리는 노래에서는 ‘우리형제’로 복수인칭일 때도 語調는 女性的이다. 증오의 대상으로서 사건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보조대상역인 계모나 올케가 등장하기도 하며, 같은 父母나 어머니가 素材로 되었어도 돌아가신 경우는 슬픔이 주조를 이루고 살아있는 父母나 繼母가 죽은 경우는 기쁨의 정서가 노래된다.

둘째로 題材는 비교적 단순한 것들인 데 이는 어린이들 생활환경의 범위가 좁고 認識의 정도가 한정되어 있어서 경험세계의 실제적인 사실 만을 素材로 한다는 점이다. 修辭 역시 자신들의 주변 대상을 借用하여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사물에 대한 순수하고 소박한 직관이 드러난다는 점이 童謠만이 지니는 독특한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구성과 마찬가지로, 표출되는 감정도 대립적인 양상을 띠면서 여러 개

5) 題材에 나타난 각편수는 題材의 비중을 살피기 위한 방편으로 각편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취했으므로 분석대상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의 각편에 분포되며 이와 같은 각편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사건으로 완결된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최소의 단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되며, 그것들의 관계가 因果的이고 論理的으로 조직된다. 이는 口傳되는 노래의 사실을 바탕으로 歌唱 당시의 唱者가 주인공⁶⁾의 의식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첨삭되면서 재창작 될때에 口演함으로써 스토리화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구비문학만이 지닌 口傳의 법칙이라 볼 수 있다.⁷⁾ 예를 들면 父母謠에서 '사랑'의 유형이 존재하는가 하면 여기에 父母의 死別로 인한 '슬픔'의 유형, 또는 '환생'의 유형이 첨가되기도 하고 그 중 어느 하나가 빠지는 경우도 보인다. 家族謠에 나타나는 題材유형을 통합적으로 分類하면 <표3>과 같다.

<표3> 家族謠 題材類型分類

題材 種類	사 랑	미 음	슬 픔	기 뽐	죽 음	환 생	篇 數
父 母 謠	A ₃ A ₄		C ₁	D ₁	E ₁		31(20.7)
兄 弟 姉 妹 謠	A ₁ A ₂	B ₁ B ₂			E ₃	F ₃	27(18)
戀 母 謠	A ₅ A ₆		C ₂ C ₄		E ₂		70(46.7)
繼 母 謠		B ₃ B ₄ B ₅		D ₂		F ₁ F ₂	12(8)
기 타	A ₇		C ₃				10(6.6)
篇 數	31(23.2)	21(16.8)	40(25.8)	6(3.9)	28(18)	19(2.3)	150(100)

※ 자료 : 任東權, 韓國民謠集 I, III(107), 金素雲, 朝鮮童謠選(23), 필자자료(20) 등 150편 분석.

<표3>에서 父母謠에 나타난 各篇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사랑, 슬픔, 기쁨, 죽음, 환생등을 題材로 하여 다양한 내용이 전개되는데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사랑'을 받았으나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겪게 된다. 다시 부모가 살아오기를 기원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부모쪽으로 '환생'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6) 唱者와 話者는 입장이 다르므로 여기서 주인공은 話者를 말한다.

7)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 52.

각편에서 戀母謠가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슬픔을 題材로 한 각편이 많다. 이점은 사랑과 죽음을 題材로 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과도 관련되는 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슬픔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직접 각편의 예를 들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 사랑과 미움

① 산아산아 높은산아
네아모리 높다한들
우리부모 날기르신
높은은혜 미칠소냐

바다바다 깊은바다
네아모리 깊다한들
우리부모 날기르신
깊은은혜 미칠소냐

산에나는 까마귀도
부모은공 잊지않네
어허우리 인생된자
부모공경 못할소냐

(平北地方)⁸⁾

② 단오라방 질행을나라
이내몸이 번구름뉘라
간데마다 그늘르키여

語釋 단 오라범 출행을 하라
이 내몸이 뭉게구름 되라
간 데마다 그느르겠네

(濟州地方)⁹⁾

8) 任東權:「韓國民謠集Ⅲ」, 1622번의 자료.

9)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上」, 313번의 자료.

- ③ 청춘이라 조비끝에
 무정하신 우리오빠
 부부일신 알아주고
 형제일신 몰라주나
 오빠가요 안살지면
 하나님이 날살찌니
 오빠죽어 개구리되어
 나는죽어 배암되서
 오월이라 단오날에
 미나리강에 만나보자¹⁰⁾

(大邱地方)

- ④ 저건네다 남태산에
 시누올케 꽃을꼭다
 남태물에 빠졌구나
 거둥보소 거둥올보소
 우리형님 거머잡고
 요네나는 안거머잡네
 물살아물살아 세지마라
 분통같은 요내몸이
 센모래에 다깨진다¹¹⁾

~하락~ (南原地方)

①에서는 父母의 恩功을 하늘과 바다를 대상으로 비유하여, 절대적이며 교훈조로 反哺之孝를 노래하고 있다. 하늘과 바다의 매개물을 통해 확대된 영역을 차용한 동심의 광대함을 엿볼 수 있다.

②는 하나 뿐인 오빠에 대한 手族之情을 노래하고 있다. 뱃길은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자연과의 투쟁이어서, 출행 나간 오빠를 기다리며 차라리 자신이 구름이 되어 떠다니며 간 곳을 살렸으면 하고 염려하는 혈육의 정이 묘사된다.

그런데 땡기를 사다주며 아껴주던 오빠가 결혼을 하자 父母의 재산이 오빠

10) 任東權:「韓國民謠集 I」, 1620번의 자료.

11) 任東權: 앞의 책 III. 1628번.

위주로 분배되고 兄弟愛보다는 父婦愛 을 중시하게 되어 사랑의 감정은 증오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증오의 감정은 ④에서처럼 주요상대역(오빠) 외에 다른 인물(올케)을 등장시켜 심화시킴으로써 이야기의 전개를 긴장시키고 흥미롭게 한다. 개인적인 불만의 노출에서 더욱 진전하여 보조상대역인 '올케'의 등장으로 시누 올케간의 질시를 오빠와의 갈등을 통해 보다 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 슬픔과 기쁨

- ⑤ 가마귀도 어멍혼다
 썩이도 어멍혼다
 우리성젠 무신죄로
 어멍안말도 몰라라 혼다

語釋 까마귀도 엄마 한다
 새도 엄마 한다
 우리형제는 무슨죄로
 엄마란 말도 모르는가

(필자채록, 애월읍금성리, 83.10. 흥덕삼, 여·61)

- ⑥ 천리만경 넓은들에
 끝없는 대경남에
 어떤새가 저리우노
 웃을그려 우는새가
 밥을그려 우는새가
 어린동생 옆에 끼고
 부모그려 우는새세

(蔚山地方)¹²⁾

- ⑦ 원어멍 문은받되
 2새는 물이 들성해도
 눈물재완 못케더라

12) 앞의책, 1550번.

다슴어멍	문은밭디
ㄹ새 낙물이	듬성해도
과닥재완	못케더라

語釋 생모 죽어	문은 밭에
가위나물이	듬성해도
눈물 많아	못케더라
계모 죽어서	문은 밭에
가위나물이	듬성해도
즐거워서	못케더라

(필자채록, 제주도 연동, 84. 4. 이금숙, 여·61)

⑤는 死別하거나, 改嫁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다. 검고 흉칙한 가마귀나 하찮은 미물인 새들도 어미와 함께 지내는데 어머니가 없는 우리 형제는 어머니란 말조차 목이 메어 나오지 않는다.

⑥에서는 새의 울음 소리를 빌어 자신의 슬픔을 싣고 있다. 접동새나 파랑새는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환생하여 노래 한다는 모티브는 素月의 詩에도 등장하는 데, 이와 같은 것은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恨과 연결시키는 보편적 정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³⁾

⑦은 生母와 의붓 어머니를 비교하여 의붓어머니의 죽음을 ‘기쁨’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음력 8月初에 행해지는 掃墳을 제재로 낳아준 어머니와 繼母에 대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출한다. <가마귀> <새> <ㄹ새낙물> 등의 단어는 어린이의 日常的·可視的·具象的인 것을 素材로 해서 緊張體系를 이룩하여 傳承力을 끈질기게 한다.¹⁴⁾는 사실에 관계된다.

다. 죽음과 환생

⑧ 아버지는 갯잎이요

13) T. H., svartengren; “强意的直喩の研究”, 佐々本達 (東京: 研究社)에서 보면 英文學에 많이 나타나는 鳥類는 일반적으로 Merry를 나타내는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14) 金榮敦: “韓國傳承童謠와 動植物”, 口碑文學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 39.

어머니는	연있어요
땃있연있	죽어지면
이내형제	어이살고
우리형제	죽거든
앞산에다	문지말고
고개너머	넘어넘어
가지밭에	문으소서
가지두개	열거들랑
우리형제	난줄아오

(서울지방)¹⁵⁾

⑨ 청태산 백마지기
 평풍산 도랑뻘이
 지슴동동 띄어놓고
 물가득 실어놓고
 옥제라 정자밑에
 시로시로 잠이들어
 전실아기 잠자는데
 다신애미 점심사서
 와서보고 돌아간다
 애비에게 말을해서
 자는애를 죽였구나
 죽은아기 몸속에서
 파랑새가 날아나며
 전실에난 자식두고
 후실장가 가지마소
 노래노래 부르면서
 간곳없이 날아간다

(慶南地方)¹⁶⁾

⑩ 꽃은피어 잎을덜고
 잎은피어 꽃덜는데

15) 任東權; 앞의책 I, 1543번.

16) 任東權; 위의책, 金素雲; 朝鮮口傳民謠集, 2322번의 자료.

우리 집에 울어머니
 날덮을줄 모르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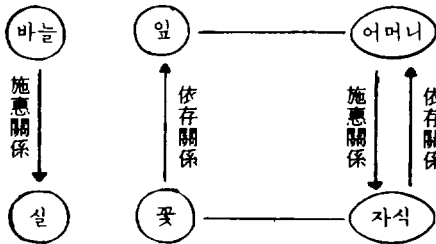
(南海地方)¹⁷⁾

죽음과 환생을 모티브로한 것은 설화나 그밖의 口傳文學에서도 많이 나타난다.¹⁸⁾

죽음은 생의 終末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佛敎의 緣起說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고 ‘가지’로의 환생은 ‘가지’가 달려있는 외형에서, 가족이란 구성원이 되어 살아감을 유추했으며 형제는 동일한 줄기에 열린 열매로 根本이 같음을 노래하였다.

⑨는 계모의 학대에 죽은 前妻子息이 파랑새로 환생됨을 모티브로 하여 그에 대한 反抗을 노래하고 있다. 이별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강할수록 계모는 증오의 대상이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포함시킬 수 없는 존재일 뿐이다.

⑩은 꽃과 잎을 들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다. 濟州島民謠에서는 실과 바늘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다. 金榮敎 교수는 실과 바늘의 관계를 다음 등식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¹⁹⁾ 꽃과 잎 역시 이 등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위에서처럼 어머니와 자식은 잎과 꽃, 바늘과 실의 관계이다. 자기와의 不可分離性을 묘사하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고 있다.

17) 任東權; 앞의 책 III, 1550번.

18) 玄容駁;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제주도의 무속설화인 <이공본풀이>나 <세경본풀이> 등에서도 환생의 모티브가 자주 등장한다.

19) 金榮敎; “어머니 사랑을 노래한 제주민요”, 月山 任東權 博士頌壽紀念論文集, 集文堂, 1986, p. 550.

戀母謠나 父母謠에는 慣用的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버지를 ‘連대’, ‘땃잎’, ‘초록제비’, ‘신주병풍’, 어머니를 ‘連잎’, ‘범나비’, ‘만년병풍’으로 비유되며 부모와 자식을 ‘고목과 가지’에, 어머니와 자식을 ‘꽃과 잎’, ‘속잎과 겉잎’, ‘실과 바늘’의 관계로 표현된다.

Millen parry는 그의 개척적인 연구²⁰⁾에서 口碑文學에 관한 가설을 표명한 바 있는데 口碑文學에서 어떤 명사에 수식어가 붙는 것은 그 명사의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또한 隱喩는 텍스트의 意味濃度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라 그것이 전통적인 詩의 표현들의 저장고에 속하기때문에 서로 전통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텍스트는 스스로가 文學에, 혹은 문학의 한 하위구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즉흥적으로 作詩를 해야하는 경우 이미 이루어져 있는 표현들의 저장고에서 자신들의 표현들을 빌어오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에 의해서 강요된 것으로 생각된다.

Ⅲ. 전개과정

위에서 우리는 인간들간의 갈등관계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러 개의 각편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화에 참여하고, motif가 되어 作品的 構造를 형성한다. 갈등관계 및 내용의 전개양상을 形式을 통해 이해하고 美學的 動機作用(motivation esthétique)을 통해, 드러나는 구조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각편들은 이야기 전개 중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插入되거나 連結되어 나타나는 데, 여러 유형의 관계들을 이용하고 여러 개의 단위요소가 因果的, 論理的으로 構造를 형성한다. 이것은 특히 죽은 어머니를 그리는 戀母謠와 繼母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戀母謠와 繼母謠를 중심으로 노래의 內部를 分析하여 構造와 意味를 추출하고자 한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잎과 꽃의 관계이지만 어머니의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 놓는다. 그러자 어린 童心은 어머니를 만나야겠다는 意志로 가득차게 된다. 그러나 그 意志는 현실의 벽에 의해 ‘좌절’되며 그 좌절이 다시 ‘극복’의

20) Tzvetan Todorov, (郭光秀譯):「構造詩學」, 文學과 知性社, 1985, pp.55~56.

과정을 취한다. 대부분 노래의 첫부분은 어린이의 다박머리형을 묘사한 의태어를 차용하여 다복녀(다박녀, 따박녀, 타복녀, 따분녀, 따복녀등)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고, 다음에 이어지는 辭說은 거의 問答體 형식으로 전개된다. 問答體는 동요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식이지만, 戀母謠에서는 어머니와의 재회가 불가능한 ‘좌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戀母謠의 構造는 內容 전개상 다음과 같이 分析된다.

- 기대①-죽은 어머니를 만나려 함
- 좌절①-절대 만날 수 없음
- 기대②-돈으로 사려 함
- 좌절②-부모난전은 없음
- 기대(기원)③-상여, 달, 기러기에게 하소연
- 보상(극복)④-무덤가에 재령참외 따 먹음

motif 분석에 따른 構造는 기대①→좌절①→기대②→좌절②→기대(기원)③→보상(극복)④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를 각 편의 예를 직접 들면서 살펴보면 기대①은 어머니를 만나야겠다는 기대이다.

- ⑪ 다박다박 다박머리
- 해다진데 어디가니
- 우리엄마 산소등에
- 젓먹으러 나는가요

(扶安地方)²¹⁾

이는 戀母謠의 거의 모든 각편의 序頭에 나타나며 만남의 대한 기대는 不可能으로 좌절되나 극복의 意志로 나타난다.

- ⑫ 산이높아서 못간단다
- 물이깊어서 못간단다
- 산높으면 넘어가고
- 물깊으면 헤어가지

21) 任東權: 앞의 책 Ⅲ, 1556번.

범무서워	못간단다
귀신있어	못간단다
범있으면	숨어가고
귀신있으면	빌고가지

(龍岡地方)²²⁾

산이 높거나, 물이 깊어서, 또는 범과 귀신이 등장하여 빚어지는 ‘좌절’은 극복의 가능성으로 나타나, 어머니를 꼭 만나야겠다는 意志의 강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意志가 절대 불가능의 좌절①로 나타난다.

⑬ 실광밑의 삶은 팔이 싹나거나
 들돌밑에 오조갈아 싹이트면
 병풍에 황계닭이 채치면
 기왓장에 박은박씨 풀이나면
 삼년묵은 쇠뿔따귀 살붙으면
 저 목밭에 황정치면
 십년묵은 고목나무 싹이트면

(江陸地方)²³⁾

실광 밑에 삶은 팔이, 십년 묵은 고목나무가 싹이 틀리도 없고 병풍에 그려진 황계닭이 채칠 리도 없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내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죽은 어머니가 온다는 역설은 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하고 있다. 비유의 대상만 바뀌면서 불가능의 사실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은 高麗歌謠의 鄭石歌나 民謠 등에도 비슷한 慣用句가 등장한다. 또한 메타포어의 사용은 이미지 재현이 쉽고 분명한 개념들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思考로는 이러한 불가능이 이해될 리도 참아낼 수도 없다. 다시 기대②를 걸고 머리를 잘라 팔아서 부모를 사려 했으나 부모난전은 아무곳에도 없다. 돈만 주면 뭐든지 구할 수 있던 금전 만능의 경험으로도 해결 해주지 못한다.

22) 任東權; 앞의 책 Ⅲ, 1552번, 金素雲: 「朝鮮口傳民謠集」, 1669번.

23) 任東權; 앞의 책 Ⅰ, 1554중 일부발췌.

- ⑭ 타박타박 타박머리
 송금송금 속아내어
 영서새라 금보되에
 곱다랗게 배를나서
 남원장에 팔아다가
 엄마사러 갔었드니
 오이전에 오이났되
 엄마전은 아니났네
 미치고도 기든년아
 엄마전이 어대있노

(全南地方)²⁴⁾

- ⑮ 물에 바늘 줌뭉이 주어
 금산비단 줌치에 놓아
 어명사젠 서월가난
 사령호는이 하더라마는
 어명꺾튼이 호나웃다

語釋

물에 바늘 줌뭉이 주어
 금산비단 주머니에 놓아
 엄마 사러 서울 가니
 사라는 이 많더라마는
 엄마같은 이 하나도 없다

(필자채록, 애월읍 금성리, 86.4, 김찬수, 남·69)

머리를 잘라 베를 짜거나, 바늘을 주어 주머니를 만들어 장에 가 팔고 엄마 사러 갔더니 엄마전은 커녕 엄마와 닮은 이도 없었다.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기에 상하지 않게 함이孝의 비롯함이라 했거늘²⁵⁾ 머리를 잘라서라도 엄

24) 金素雲:「口傳童謠選」의 자료.

25) 孔子謂曾子曰 身體髮膚受之父母不取毀傷孝之始也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孝之終也(孝經).

마를 찾으려 했으나 다사 좌절②을 맛본다. 만남의 불가능을 인식한 후 다른 차원의 기대③ 즉 기원을 한다. 기원의 대상은 지나가는 상여와 달, 기러기 등에 투영된다.

- ⑯ 저기가는 저상여는
 남상연가 여상연가
 저승길 가거들랑
 우리엄마 만나거든
 어린자식 보챌다고
 백수병에 젖을짜서
 한숨으로 마개막아
 무지개로 끈을달아
 저나리소 저나리소
 안개속에 저나리소

(黑山島地方)²⁶⁾

- ⑰ 돌아돌아 대보름돌아
 높지들렁 청멩케트라
 저궁속에 나부미싯저
 진디보멍 여울로오게

語釋 달아달아 대보름달아
 높이 들고 청명하게 뜨라
 저승에 내부모 있다.
 물고인 곳보며 좋은 곳으로 오게

(濟州地方)²⁷⁾

무지개를 설정하여 저승과 인간세상을 잇는 매체로, 또는 안개를 통해 젖을 유추하며, 달에게 하소연함으로써 마음속에 우주를 수용할 수 있었다. 이는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환상적인 審美眼을 엿볼 수 있다.

만남의 의지와 기원은 산소에 찾아가 산소에 열린 재령참외를 따먹음으로써 보상 받게 된다.

26) 任東權; 앞의책 I, 1562번.

27) 秦聖麒; 앞의책, 19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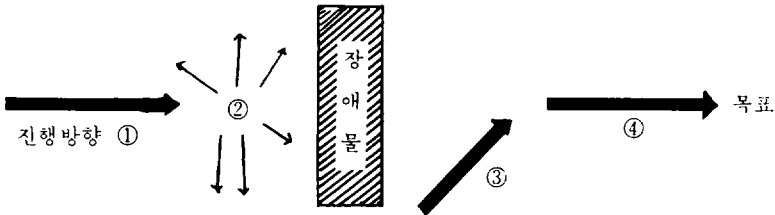
⑬ ~상락~

낮이면 해를따라
 밤이면 달을따라
 내어머님 무덤앞에
 어덕지덕 다다라서
 찜외뜬어 분장하고
 눈물흘려 제지내고
 목을놓아 울어봐도
 우리엄마 말이없다
 내어머님 무덤앞에
 데령참외 열렸고나
 한개따서 맛을보니
 우리엄마 젓맛일세

(平南地方)²⁸⁾

보상의 대상물 즉 어머니의 젓과 등가물인 노랑참외, 재령참외, 알락참외, 홍두깨 꽃이 등장하고, 참외나 홍두깨꽃을 따먹음으로,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欲求挫折(frustration)을 合理化 시키고 있다. 이처럼 戀母謠에는 精神的인 평형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適應過程이(Process of adjustment) 잘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노력의 과정과 인간의 성숙되는 모습이 잘 나타난 노래로, 자신들의 일상을 솔직한 심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머니를 여윈 어린이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²⁹⁾



28) 金素雲, 앞의책의 자료.

29) 全國教育大學 兒童發達과 生活指導研究會, 「兒童發達과 生活指導」, 教育出版社, 1975, pp. 224~225.

개인은 목표④를 향하여 일어난 행동①이 그림과 같이 어떤 장벽으로 인해서 방해받게 되면 ②와 같이 여러가지 반응을 시도한다. 그러는중에 ③과 같은 진로를 선택하여 그 장벽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앞으로 추진하는 힘이 작용하며, 둘째로는 어떤 장벽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태와, 세째는 그것을 해결한 뒤에도 계속 목표를 향해 거기에 도달하려는 노력과, 네째로 그 노력의 결과로 목표에 도달하여 긴장이 해소되는 단계가 된다.

어머니의 죽음은 자식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후실장가를 들게 되어 또 다른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繼母謠는 繼母謠만큼 각편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스토리 전개가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있다. 이것은 繼母型的 고대 소설 구성과 유사하며 前妻子息, 繼母, 아버지의 삼각관계가 갈등구조로 나타난다.

그 구조는 ①아버지의 再取→②繼母의 학대→③前妻子息의 죽음→④후실장가의 만류로 나타낼 수 있다.

繼母로 인하여 야기되는 家庭의 悲劇은 東洋에서 극심했는데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팥쥐전> 등의 古代小說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³⁰⁾ 곧 前妻生인 장화와 홍련 姉妹의 죽음과 그 冤魂이 府使의 公廳에 나타나서 伸冤하는 것 등은 同一한 발상이라 볼 수 있다.

⑬ 장개가네	장개가네
선다섯에	장가가네
머리신대	먹칠하고
눈빠진대	불콩박고
이빠진대	박세박고
코빠진대	골미박고
~중략~	
전실자식	있거들랑
후실장개	가지마소
이내눈물	받아서로
지양뜰에	뿌렸다가
지양꽃이	피거들랑

30) 金起東:「韓國古典小說研究」, (서울:教育口研究社), 1983. pp.510~512.

날만이기 돌아보소
 ~下略~ (醴泉地方)³¹⁾

㉑ ~上略~

우리바니 거동바라
 한두칼 망태열고
 작두열고 흠비함비
 우리형제 목을안아
 남강물에 던졌구나
 어어불상 내정이야
 전실자식 있거들랑
 후실장개 가지마라
 내자식 죽으니
 허사구나 (河東地方)³²⁾

㉑는 아버지의 후실장가 드는 모습을 풍자한 것으로 전실 자식의 죽음과 가지 한쌍이 열려 친구에게 주는 모티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계모의 수모와 학대 부분이 직접 드러나지 않고 암시되고 있다. ㉒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후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거기에는 계모의 계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再取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繼母謠의 구조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 ① 아버지의 再取
- ② 繼母의 학대
 - 지나치게 일을 시킴
- ③ 前妻子息의 죽음
 - 계모가 아비와 짜서 자는 애를 죽임
 - 남강물에 던져서 죽임
 - 지나친 학대와 구박으로 자살케 함
- ④ 후실장가의 만류
 - 아버지가 후회

31) 任東權: 앞의 책 I, 1629번.

32) 任東權: 앞의 책 I, 1631번.

- 죽은 자식이 파랑새가 되어 노래함
- 가지 한쌍 일리어 동무에게 줌

위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개의 각편의 固定體系는 유지되면서 非固定體系 만이 바뀌어 전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 데, 이와 같이 유형구조는 共時的으로 보아 여러 각편에 共通的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通時的으로 보아 固定的인 것이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社會的, 美學的 意味를 지닌다.³³⁾

戀母謠나 繼母謠에서는 어린이들의 日常에서 벌어지는 喜悲의 갈등을 문학 작품에 수용함으로써 질서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 그들 나름대로 지향하고 있으며 생의 어려움을 승화시키는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IV. 맺 음 말

傳承童謠 중에서 家族과 관계된 노래를 중심으로 作品에 등장한 인물 관계와 내용 구조를 분석하고, 구조의 의미와 전개과정의 논의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삼을까 한다.

첫째, 家族에 관계된 노래의 각편을 素材, 題材, 類型, 각편수 등을 참고하여 어머니의 不在 상황에서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 특히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르는 것을 戀母謠, 부모의 恩功을 노래하거나 죽은 부모를 그리워 하는 고아의 처지를 노래한 父母謠, 手族之情이나 질시를 노래한 兄弟姊妹謠, 제모에 대한 증오를 노래한 繼母謠, 그외 등으로 分類할 수 있었다.

둘째,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간의 갈등에 따라 주역㉠과 상대역㉡이 존재하는 유형과 주역㉢, 주요상대역㉣, 보조상대역㉤이 존재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前者는 주로 戀母謠나 父母謠에 나타나고 보조상대역이 등장하여 갈등을 심화시킨 것으로는 兄弟姊妹謠, 繼母謠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내용적 측면에서 사랑과 미움, 슬픔과 기쁨, 죽음과 환생 등 對立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父母謠는 사랑, 슬픔, 기쁨, 죽음, 환생의 Motif, 戀母謠는 슬픔,

33) 趙東一:「叙事民謠研究」,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0, pp. 161~162.

죽음, 환생의 motif, 兄弟姊妹謠는 사랑, 미움, 환생의 motif, 繼母謠는 미움, 기쁨, 죽음의 motif로 구성된다.

네째, 여러개의 각편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화에 참여하고 몇 개의 motif가 모여 사건이 구조화 된다. 전개과정은 因果論的인 순서를 취하며, 이러한 관계가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형성하고 있어 戀母謠나 繼母謠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다섯째, 戀母謠는 기대①→좌절①→기대②→좌절②→기대(기원)③→극복(보상)④의 구조로 구성되고 있는데 어머니의 不在상태인 욕구좌절의 상태를 해결하려는 適應過程(Process of adjustment)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繼母謠는 어머니의 죽음→아버지의 再取→계모의 학대→前妻子孀의 죽음→후실장가의 만류라는 전개과정을 취하며 고대소설 중 <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등의 繼母型的 소설과 구성이 유사하다.

傳承童謠의 수집이나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家族에 관련된 노래를 살펴보면 口演狀況 재현이 힘들고 立體分析이 정확지 못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어린이들의 생활 및 心理와의 관련하에 각편의 分析과 동요 전반을 종류 단위로 한 다각적인 연구, 가락과 사설의 상관분석, 記錄文學 특히 國文學 작품과의 對比研究 등의 과제가 남는다.

참 고 문 헌

- 金素雲：「朝鮮口傳民謠集」，東京：第一書房，1933。
——：「口傳童謠選」，博文書館，1940。
-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上」，서울：일조각，1965。
——：「韓國傳承童謠와 動植物」口碑文學6，韓國精神文化研究所，1981。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제주민요」月山 任東權 博士頌壽紀念論文集，集文堂，1986。
- 任東權：「韓國民謠集 I, III」，集文堂，1975。
——：「韓國民謠集 V」，集文堂，1980。
- 趙東一：「叙事民謠研究」，계명대학교 출판부，1970。
- 秦聖麒：「南國의 民謠」，濟州民俗文化研究所，1968。
- 全國教育大學研究會：「兒童發達과 生活指導」，教育出版社，1975。
- 崔在錫：「濟州島의 親族組織」，一志社，1984。
-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T. H. Svartengren: “強意的直喩の研究”，佐々本達譯，東京：研究社。
- Tzvetan Todorov, (郭光秀譯)：「構造詩學」，文學과 知性社，1985。